

집단따돌림 행동유형과 심리적 특성*

강 은 희 이 은 희[†] 임 은 정
전남대학교

본 연구는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경험유형에 따라 가해집단, 피해집단, 가해-피해집단, 일반집단으로 구분하고, 이들 하위집단별로 자기에 성향, 지배성, 사회·학업적 경쟁심 및 마키아벨리적 신념(Machiavellian beliefs)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했다. G 광역시 소재 4개 중학교에서 1·2학년, 남녀학생 408명을 대상으로 하여 집단따돌림 가해·피해 선별척도를 이용해서 집단을 구분하고 이들 집단간에 자기에성, 지배성, 사회·학업적 경쟁심 및 마키아벨리즘의 심리적 특성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자기에 하위요인별 집단간 차이에서 '특권의식'은 가해집단과 일반집단이 가해-피해집단보다 높고, '권력'욕구는 가해집단과 일반집단이 피해집단과 가해-피해집단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우월감'은 일반집단이 가해-피해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해집단과 일반집단이 피해집단과 가해-피해집단보다 지배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가해집단 학생들은 비현실적으로 자신을 우월한 존재로 생각하여 다른 학생들에게 권력을 휘두르며 희생양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피해집단과 가해-피해 집단 학생들은 지배성과 자기에성이 약하여 가해 학생들의 희생양이 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가해-피해 집단이 일반집단에 비해서 학교성실성 점수가 낮았으며 가해-피해집단이 일반집단보다 마키아벨리즘적 특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교 상담 현장에서 가해집단, 가해-피해집단, 피해집단의 심리적 특성에 적합한 차별적인 집단따돌림 개입 전략 및 예방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요어 : 집단따돌림 가해집단, 피해집단, 가해-피해집단, 심리적 특성

강은희, 이은희, 임은정은 전남대학교 두뇌한국21 부모·교사·학생의 자가지도력 개발연구단에 근무하고 있음
* 본 연구는 두뇌한국21-부모·교사·학생의 자가지도력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어짐.
† 교신저자 : 이 은 희, (500-757)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0,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전화 : 011-634-1577 E-mail : ehlee@hanmail.net

최근 우리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가 집단따돌림 현상이다. 집단따돌림은 특정 학생을 정해 놓고 집단의 다수가 집중적으로 따돌리고 괴롭히는 폭력의 한 형태이다. 집단따돌림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최악의 경우에 자살을 시도할 수도 있으며, 이면을 가거나 학교를 포기하는 등 심각한 사회병리적 현상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로서 청소년기에 겪었던 집단따돌림의 치명적인 경험은 성인이 되어서 대인관계 불안이나 공포를 경험하며, 대인관계를 회피하거나 억압하게 된다(박경숙·손희권·손혜정, 1998). 집단따돌림의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은 피해자 뿐만 아니라, 가해자와 동참자 및 이를 목격한 청소년들에게도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는 등 커다란 불행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현재 청소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집단따돌림은 이전에도 부분적으로 존재해 왔으며, 청소년 집단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다. 최근에는 직장 내 따돌림 등 성인사회에까지 집단따돌림이 유행병처럼 번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청소년들 사이의 집단따돌림은 점차 집단화 되어 가는 추세이며(구본용, 1997), 피해자와 가해자가 구별이 안될 정도로 일상화 되어가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동아일보, 2001, 9, 24; 한영주, 1999). 최근 국내 연구에 의하면 가해와 피해의 과정이 한 개인에게 중첩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가해-피해의 상호상승 작용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박경숙, 1999).

그러나 현재의 집단따돌림 문제는 사회적 무관심 속에서 도외시되어 왔고, 심지어 학교 현장에서도 속수무책인 실정이다. 최근에 한 고등학생이 자신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폭행해온 급우를 수업중에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였다(동아일보, 2001, 10, 14). 이것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만연된 집단따돌림 문제를 외면하고 방치할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써, 집단따돌림에 의한 폭력이 또다른 폭력을 낳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우리 청소년들이 직면한 집단따돌림 현상은 개인이 풀어가야 할 숙제가 아니라,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구본용(1997)은 집단따돌림의 원인을 주로 청소년기의 심리-사회적 요인과 집단화 경향, 개인내적 특성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이시형(1998)은 처벌위주의 가정 양육태도와 통제위주의 학교교육을 집단따돌림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한편 한준상(1999)은 동질성을 강조하고 획일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일수록 개인적 가치가 허용되지 않으며, 따돌림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 즉 집단주의 문화, 연고주의, 패거리 문화가 집단따돌림의 문제를 심각하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집단따돌림의 원인은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문화 속에서 집단따돌림을 발생-유지케 하는 집단분위기와 압력, 그리고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피해자-가해자의 개인적 특성의 상호작용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집단따돌림에 관한 국내의 연구들은 주로 개인의 '특성'(trait)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경향이 있다. 집단따돌림과 관련된 피해자 및 가해자는 나름대로 독특한 개인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관점으로, 이들의 기질적 특성과 개인적 특성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초기 가정 환경에도 관심을 갖는다. 피해자의 부모는 자녀에게 과잉보호적이고 과잉관련된 가족체계를 가지며, 반면에 권위주의적이거나 무관심한 부모의 자녀는 공격성이 높고, 가해자 부모의 대다수는 폭력적이고 일관성이 없으며, 체벌적 훈육방법과 학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Bowers, Smidth, &

Binney, 1994; Lambourn, Mount, Steingberg, & Dornbusch, 1991; Tattum & Herbert, 1997; 심선보, 2000에서 재인용). 이러한 국내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초기 가정환경과 부모양육태도가 집단따돌림을 유발시키는 요인이라면, 집단따돌림 예방을 위한 적절한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상담 프로그램이 개입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심리적 특성을 명확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최근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집단따돌림의 개인적 특성에 관한 연구중에서 자기애성(narcissism)과 지배성(dominance) 및 마키아벨리적 신념(Machiavellian beliefs)에 관한 연구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집단따돌림 가해학생들이 마키아벨리적 신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학생지도 차원에서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하겠다. 여기에서 마키아벨리적 신념이란 자신의 목적달성을 위해 타인을 조종하고 수단시하려는 심리적 경향으로, 이런 성향의 사람들은 공격적이고 냉담하며, 충동적으로 자극을 추구하고 천박한 매력으로 자기를 과시하며 자기중심적인 특성을 보인다.

박정민(1998)은 일반 고등학생과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기애성과 지배성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음을 밝히고, 자기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높을수록 타인에 대한 지배성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Pellegrini, Bartini와 Brooks(1999)의 연구에서는 집단따돌림의 가해자와 지배성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밖에 최근 국내 연구에서도 집단따돌림의 가해자들은 대인관계시 자기과시적임을 부분적으로 보고하고 있다(김용태, 박한샘, 1997; 김정원, 2000; 한영주, 1999). 따라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집단따돌림 경험유형에 따라 자기애성 및 지배성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Biscardi와 Schill(1985)는 자기에 성향과 마키아벨리즘에는 정적 상관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자기에 성향이 높을수록 공격성을 행동으로 표출하고 자제력이 약하며, 마키아벨리적 특성 중의 하나인 타인에 대한 배려가 낮음을 보여주었다. Carroll(1987)의 연구에서도 자기애성과 권력욕은 정적 상관이 있으나, 친밀성과 부적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는 자기애성향이 높을수록 권력욕은 강하지만, 마키아벨리적 특성인 타인과의 친밀성이 부족함을 의미한다.

마키아벨리적 특성이 강한 사람들은 Eysenck의 성격 요인(이하 EPQ)중 정신병적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 밝혀졌다(Mynard & Joseph, 1997; Slee & Rigby, 1993; Sutton & Keogh, 2001). 이들은 냉담하며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타인을 지배하고 교묘하게 조종하려는 특성을 갖는다. 국내의 연구에서도 비행 청소년들이 마키아벨리적 특성과 일치하는 경향, 즉 EPQ중 정신병적 성향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염태호, 김정규, 1991; 원호택, 1991). 최근 외국에서는 집단따돌림과 마키아벨리적 신념에 관련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Braginsky, 1970; Mynard & Joseph, 1997; Slee & Rigby, 1993; Sutton & Keogh, 2000, 2001).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집단따돌림과 관련된 마키아벨리적 신념에 관한 연구들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집단따돌림의 개인적 특성과 관련된 마키아벨리적 신념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Sutton과 Keogh(2000)는 집단따돌림과 관련하여 마키아벨리적 신념이 강한 학생들은 학교에서의 대인관계적, 학업적 상황에서 교사의 교육적 지도와 학급의 규칙에 비협조적이며, 학습상황에서 고의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집단성향이 강하고 무한경쟁력을 추구하는 우리

나라의 문화권에서, 지나친 경쟁의식에 시달리고 있는 청소년들이 비현실적으로 과장된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하여 집단따돌림이란 합법적인 방법을 사용할 소지가 있다. 즉 우리나라의 집단따돌림 현상은 왜곡된 방식으로 자신의 과장된 우월감을 추구하기 위해 누군가 희생양을 찾는 행위로 나타날 수 있다. 이처럼 청소년들이 학업에 대한 경쟁부담을 안고 있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배경을 고려해 볼 때, 집단따돌림 문제는 그 원인과 양상이 외국의 경우와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학업 경쟁력이 극심한 사회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집단따돌림과 학업 경쟁심과의 실증적인 연구가 전무(全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집단따돌림과 관련하여 마키아벨리적 신념과 사회·학업적 경쟁심에 대한 연구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상담기관등을 중심으로 한 교육현장에서 집단따돌림에 관한 많은 연구와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정확한 원인 규명 없이 주먹구구식의 이론과 경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 타당성과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검증되지 않은 외국의 결과들을 그대로 적용해 개입프로그램을 실행하려는 시도(한영주, 1999)는 개선되어야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선행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하여 집단따돌림 경험유형에 따라 가해집단, 피해집단, 가해-피해집단, 일반집단으로 구분해 보고, 각 집단별로 자기애성, 지배성, 사회·학업적 경쟁심 및 마키아벨리적 신념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 또래 집단에게 나타나는 집단따돌림의 현상을 심리적 특성차원에서 규명하여 심층적인 이해를 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본 연구결과가 집단따돌림으로 고통받는 피해학생 및 가해

학생들의 심리적인 특성에 적합한 개별적이고 효과적인 상담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 법

조사대상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피해자 및 가해자의 특성을 밝히기 위해 G광역시 소재 중학교 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남녀공학 4개교(D구 소재 1개교, S구 소재 2개교, G구 소재 1개교)에서 남녀 학생, 1·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학년별, 남녀비율을 비슷하게 선정했다. 각 학교당 3학급씩 할당하여, 모두 450명에게 자기 보고식 질문지를 통한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무응답과 무성의하게 응답한 42명을 제외하고 총 408명이 표집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조사절차

본 연구가 또래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이기 때문에 새학기가 시작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2001년 10월 15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하고 질문지를 회수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주제가 학생들에게 민감한 사안이고, 좀 더 신뢰성 있는 응답을 얻기 위해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를 제외하고 학생들과 관련이 적은 교사가 실시하였다. 문장독해 능력이 부족한 특수반 학생은 제외하였으며, 학생들에게 연구목적과 비밀보장 및 유의사항을 충분히 주지시킨 후, 이해가 안되는 문장은 질문하도록 당부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질문지를 작성케 하였다.

조사 도구

본 연구의 조사설문지의 측정변인들은 집단 따돌림 가해, 피해 선별 척도로서 집단따돌림 행동 척도, 심리적 특성으로서 지배성, 자기에성, 아동용 마키아벨리즘 척도, 사회적 특성으로서 사회·학업적 경쟁심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가해, 피해 선별 집단간의 심리·사회적 특성들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각 척도별로 일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집단간의 사례수가 달라서 SAS의 PROC GLM 절차를 사용하였다. 사후 검증으로서 집단간의 사례수가 다르더라도 적용 가능하며 모든 사후 중다비교법 중에서 1종 오류에 가장 내강한 Schéffe 검증법(변창진·문수백, 1994)을 사용하였다.

집단따돌림 가해·피해 선별 척도

집단 따돌림 가해자 성향의 집단을 선별하기 위해서 Neary와 Joseph(1994)이 만 8세이상을 대상으로 개발한 4점척도의 집단 따돌림 행동척도(Bulling-Behavior Scale)를, 집단 따돌림 피해자의 성향의 집단을 선별하기 위하여 Callaghan과 Joesph(1995)이 만 8세 이상의 대상으로 개발한 4점척도의 또래로부터의 따돌림 척도(Peer-Victimization Sclae)를 이춘재와 곽금주(2000)가 수정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춘재와 곽금주(2000)의 연구에서 나타난 가해척도와 피해척도의 신뢰도는 각각 .75와 .77이며, 본 연구에서의 가해척도와 피해척도의 신뢰도는 .79와 .76으로 나타났다.

집단따돌림 가해·피해 선별 척도 분석결과, 4개의 하위집단으로 나누어 집단따돌림 가해집단(79명), 피해집단(52명), 가해-피해집단(140명), 일반집단(137명)으로 분류하였다. 집단의 분류방법은 집단따돌림 가해·피해 선별 척도에서 구한

표 1. 집단따돌림 하위집단 분포

	가해집단	피해집단	가해-피해집단	일반집단
남(N=204)	37명	23명	85명	59명
여(N=204)	42명	29명	55명	78명
전체(N=408)	79명	52명	140명	137명

가해점수 총 24점과 피해점수 총 24점의 분포상에서 중앙치 분할을 통해, 가해·피해 정도를 나타내는 2개의 축을 중심으로 각기 상위, 하위 겹치는 부분을 4집단으로 나누었다. 그 결과 가해-피해집단의 사례수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일반집단, 가해집단, 피해집단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분포가 표 1에 제시되어있다.

자기에성 척도(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이하 NPI)

개인의 자기에 성향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Raskin과 Hall(1979)이 개발한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검사 (54문항)을 Emmons(1981)가 두차례의 요인분석을 통해 37문항으로 만들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김윤주(1991)가 번안하여 사용하였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Raskin과 Terry(1988)의 문항을 박정민(1998)이 우리나라 고등학생에게 맞도록 요인분석하여 30문항을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아니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까지의 5점 척도 상에서 응답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에 성향이 각 하위차원에서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신뢰도는 .90, 특권의식요인 .58, 권력요인 .81, 자기찬미요인 .77, 우월감요인 .65으로 나타났다.

지배성 척도(Dominance Scale)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지배성을 측정하기 위해 이상로, 변창진, 진위교가 중앙적성연구소에서 제작하여 1996년에 재 표준화된 중학생·성인용 성격진단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가 측정하는 성격특성은 안정성, 지배성, 사회성, 책임성, 사려성, 동조성, 남향성, 충동성, 우월성의 9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본 연구에서는 지배성 척도 35문항만 사용하였으며, ‘예-아니오’ 방식의 2점 척도에서 본 연구에서는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아니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까지의 5점 척도로 바꾸어 응답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지배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박정민(1998)의 연구에서 보고된 지배성 척도의 신뢰도는 .81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지배성 신뢰도는 .88로 나타났다.

사회·학업적 경쟁심 척도(The Social and Academic Competition Scale)

이 척도는 학생들의 교실에서 사회적 경쟁의식과 학습에 대한 노력의 동기유발 태도를 재는 것으로,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Sutton과 Keogh(2000, 2001)가 사용한 “The Social and Academic Competition Scale”을 국문으로 번안한 후 역번역 과정을 거쳐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척도상에서 응답하도록 하였다. 사회·학업적 경쟁심 척도의 구성개념을 확인하기 위하여 SAS를 이용하여 공통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척도의 원 개발자인 Sutton과 Keogh(2001)처럼 공통요인분석 중 특수변량과 오차변량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고 각 문항들내의 요인구조의 탐색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축요인분석(Principal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고 Varimax 회전을 시켰다(Tabachinck & Fidell, 1996). 공통분

(communality)의 초기값은 SMC(중다상관제곱값)을 사용하였다. 요인분석결과 각 문항이 1개의 요인에 .30이상의 요인부하량을 보이고 이 요인부하량이 다른 요인의 요인부하량과 .20이상의 차이가 나는 경우에만 요인에 포함시켰다. 요인분석결과 Sutton과 Keogh(2001)의 연구에서처럼 2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 1이 전체 변량의 72.5% (고유가=2.61)를 요인 2가 31.6%(고유가=1.14)를 설명하였다. 부록 1에 각 요인별 문항들과 요인부하량이 제시되어 있다.

요인 1은 학생들이 자신과 타인을 위해 학교에서 바람직하게 행동하려는 태도와 관련된 ‘학교 성실’(school conscientiousness)과 관련된 문항들로서 본 연구에서는 7문항이 선정되었다. 그러나 Sutton과 Keogh(2001)의 연구에서 요인 2에 포함되었던 “나는 학교에서 잘하는 것이 미래에 중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한다”, “나는 힘든 일에 도전하는 것을 좋아한다” 문항들이 요인 1에 포함되었다.

요인 2는 사회적 대인관계에서 인정받고 싶은 권력과 성공에 관련된 문항들로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며, 숨어서 노력을 하는 태도와 관련된 ‘사회적 성공 욕구’(desire for social success)와 관련된 문항들로서 본 연구에서는 4문항이 선정되었다. Sutton과 Keogh(2001)의 연구에서 요인1의 신뢰도 Chronbach α 는 .63, 요인 2의 신뢰도는 .61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요인 1의 경우 .78, 요인 2는 .60으로 나타났다.

아동 마키아벨리즘 척도(Kiddie-Mach Scale)

이 척도는 대인관계에서 인간본성과 신뢰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척도로서,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Sutton과 Keogh(2000, 2001)이 사용한 Kiddie-Mach Scale을 연구자가 국문

으로 번역한 후 역번역 과정을 거쳐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척도상에서 응답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마키아벨리적 신념이 강함을 의미한다. 문항분석을 통하여 문항간 신뢰도가 떨어지는 3문항을 제외한 17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신뢰도는 .61로 나타났다.

결 과

따돌림 행동 유형에 따른 심리적 특성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일원변량분석 및 개별집단 비교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따돌림 행동유형에 따른 자기애성의 차이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자기애성 전체의 평

균값을 살펴보면 가해집단이 가장 높고, 일반집단, 피해집단, 가해-피해 집단 순으로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F(3, 404) = 6.43, p < .001$, 쌍별 비교 결과 가해집단과 일반집단이 가해-피해 집단에 비해서 자기애성점수가 높았다.

자기애성의 하위요인중 ‘특권의식’은 가해집단, 일반집단, 피해집단, 가해-피해집단 순으로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F(3, 404) = 4.52, p < .01$, 쌍별 비교 결과 가해집단과 일반집단이 가해-피해 집단에 비해서 ‘특권의식’ 점수가 높았다.

자기애성의 하위요인중 ‘권력’은 가해집단, 일반집단, 가해-피해집단, 피해집단 순으로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F(3, 404) = 10.18, p < .001$, 쌍별 비교 결과 가해집단과 일반집단이 가해-피해 집단과 피해집단에 비해서 ‘권력’ 점수가 높았다.

자기애성의 하위요인중 ‘우월감’은 일반집단,

표 2. 따돌림 행동유형에 따른 심리적 특성

	집단 1 가해집단 (n=79)	집단 2 피해집단 (n=52)	집단 3 가해-피해집단 (n=140)	집단 4 일반집단 (n=137)	F	Scheffe 사후검증
	M(SD)	M(SD)	M(SD)	M(SD)		
자기애성(전체)	3.04(.58)	2.82(.53)	2.76(.53)	3.00(.57)	6.43***	1, 4 > 3
특권의식	3.40(.78)	3.14(.67)	3.08(.71)	3.34(.74)	4.52**	1, 4 > 3
권력	3.19(.68)	2.78(.57)	2.88(.60)	3.18(.61)	10.18***	1, 4 > 2, 3
자기찬미	2.79(.65)	2.73(.64)	2.55(.60)	2.64(.67)	2.64*	
우월감	2.93(.78)	2.86(.79)	2.67(.67)	3.05(.74)	6.31***	4 > 3
지배성	3.22(.51)	2.86(.51)	2.94(.50)	3.18(.50)	10.42***	1, 4 > 2, 3
학교성실	3.54(.69)	3.36(.71)	3.30(.61)	3.55(.73)	3.97*	4 > 3
사회적 성공욕구	1.91(.57)	2.11(.65)	2.07(.62)	1.86(.63)	3.74*	
마키아벨리적 특성	2.80(.42)	2.77(.46)	2.86(.43)	2.69(.41)	3.84*	3 > 4

주. * $p < .05$, ** $p < .01$, *** $p < .001$

가해집단, 피해집단, 가해-피해집단 순으로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F(3, 404) = 6.31, p < .001$, 쌍별 비교 결과 가해-피해 집단이 일반집단에 비해서 '우월감'점수가 낮았다. 즉 집단간 차이에서 가해집단과 일반집단이 가해-피해집단보다 '특권의식'이 높고, 가해집단과 일반집단이 피해집단과 가해-피해집단보다 '권력'욕구가 강하며, 가해-피해집단이 일반집단보다 '우월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가해집단이 타집단에 비해 자기애 성향의 4개 하위요인중 '특권의식', '권력'이 가장 높은 집단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집단 따돌림 가해 행동을 많이 한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서 자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과장되게 지각하고 타인에 대해 특별한 대우나 복종을 기대하며, 끝없는 성공과 권력에 대한 욕구가 가장 강함을 의미한다. 또한 집단 따돌림 가해 행동을 많이 한 학생들은 '특권의식', '권력'에서 일반 학생들과 비슷한 성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집단 따돌림 가해-피해를 동시에 경험한 학생들은 가해 행동을 많이 한 학생들과 일반학생들보다 '특권의식', '권력'이 일반 학생들보다 '우월감'이 낮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자기애 성향이 가장 낮은 집단인 것으로 밝혀졌다.

따돌림 행동 유형에 따른 지배성의 차이

집단 따돌림 행동 유형에 따른 지배성 점수는 가해집단, 일반집단, 가해-피해 집단, 피해집단 순으로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F(3, 404) = 3.84, p < .001$, 쌍별 비교 결과 가해집단과 일반집단이 가해-피해 집단과 피해집단에 비해서 지배성 점수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 따돌림 피해를 당한 경험

이 많은 학생들(가해-피해 집단, 피해집단)이 일반 학생들과 집단 따돌림 가해 경험이 많은 학생들에 비해서 타인을 주도하고 지배하려는 성향을 적게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돌림 행동유형에 따른 사회·학업적 경쟁심의 차이

집단 따돌림 행동 유형에 따른 학교성실성 점수는 일반집단, 가해집단, 피해집단, 가해-피해 집단 순으로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F(3, 404) = 3.97, p < .01$, 쌍별 비교 결과 가해-피해 집단이 일반집단에 비해서 학교성실성 점수가 낮았다. 따라서 집단 따돌림 가해와 피해를 많이 경험한 학생들이 일반학생들에 비해서 학교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대인관계적, 학업적 상황에서 교사의 교육적 지도와 학급규칙을 잘 따르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집단 따돌림 행동 유형에 따른 사회적 성공욕구는 피해집단, 가해-피해집단, 가해집단, 일반집단 순으로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F(3, 404) = 3.74, p < .05$, 쌍별 비교 결과 집단간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학업성취에 고의적으로 노력하지 않거나 숨어서 노력하는 사회적 성공욕구에 있어서 집단간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따돌림 행동유형에 따른 마키아벨리적 신념의 차이

집단 따돌림 행동 유형에 따른 마키아벨리적 신념은 가해-피해집단, 가해집단, 피해집단, 일반집단 순으로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F(3, 404) = 3.74, p < .01$, 쌍별 비교 결과 가해-피해 집단이 일반집단에 비해서 마키아벨리적 신념 점수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 따돌림의 가해와 피해를 동시에 경험하는 학생들이 일

반 학생들에 비해서 대인관계 상황에서 타인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타인을 조종하려는 마키아벨리적 신념이 높음을 의미한다.

논 의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또래관계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집단따돌림의 가해자 및 피해자의 개인적 특성을 구별하여 상담적 접근법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집단 따돌림과 연관된 것으로 밝혀진 자기애성향, 지배성, 사회·학업적 경쟁심, 마키아벨리적 신념을 개인적 특성 요인으로 정하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하였다. 먼저 예비조사를 통해 척도의 가독성(readability)과 신뢰도를 구하고,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작성하여 G광역시 3개구의 4개 중학교의 1·2학년, 남녀학생 408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집단따돌림의 가해집단 79명과 피해 집단 52명, 가해-피해집단 140명, 일반집단 137명으로 4개 하위집단을 구성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과제에 따라 집단따돌림 하위 집단에 대한 자기애성, 지배성, 사회·학업적 경쟁심 및 마키아벨리적 신념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따돌림 하위집단별 자기애 성향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전체적 자기애성향과 3개 하위요인(특권의식, 권력, 우월감)에서 집단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용

태·박한샘, 1997; 김정원, 2000; 박경숙 등, 1998; 한영주, 1999). 또한 일반학생과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박정민(1998)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집단따돌림 가해 학생들에게서 자기애 성향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특히 하위요인중 특권의식, 권력에서 가해집단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우월감은 일반집단, 가해집단 순으로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자기애성향은 집단따돌림 가해자의 개인적 특성으로 규정지을 수 있다. 박정민(1998)과 Raskin, Novack과 Hogan(1991)의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집단따돌림 가해자들의 높은 공격성향은 자기애성향을 매개로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가해자들의 왜곡되고 과장된 자존감은 현실적으로 수용되지 못하고 자신의 욕구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집단따돌림을 주도하는 행위를 강화시키고 반복해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자기애 성향이 높은 가해자들의 특성은 학년이 올라 갈수록 피해자는 줄어들지만 가해자의 비율은 고정되어 있다는(Boulton & Underwood, 1992; Olweus, 1994; Whitney & Smith, 1993; 김종미, 1997에서 재인용) 연구 결과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또한 집단간 차이를 살펴보면, ‘특권의식’에서는 가해집단과 일반집단이 가해-피해집단 보다 높았으며, ‘권력’에서는 가해집단과 일반집단이 가해-피해집단, 피해집단보다 높았다. 또한 ‘우월감’은 일반집단이 가해-피해집단보다 높았다. 대체로 가해집단과 일반집단이 가해-피해집단과 피해집단보다 자기애 성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영주(1999)의 연구결과가 일반 집단과 가해집단에서 자기애성이 높게 나오는 것과 김정원(2000) 연구에서 가해집단과 일반집단이 자아존중감이 높고 과시-도취적이라는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둘째, 집단따돌림 하위집단별 지배성과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가해집단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가해집단과 일반집단이 피해집단과 가해-피해집단 보다 지배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 결과들과 일치하고 있으며 (박정민, 1998; Pellegrini, Bartini & Brooks, 1999), 가해집단과 일반집단에서 자기에 성향과 타인에 대한 지배욕구가 동시에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가해집단은 자기애성의 하위요인중 '권력'과 지배성에서 동시에 상당히 높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박정민(1998)의 연구에서 자기애성의 '권력'요인이 지배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진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가해자들의 권력욕구는 타인을 지배하려는 욕구를 더욱 상승시키며 따돌림 행위를 주도해 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자기애성과 지배성의 집단간 사후비교 결과 일반집단과 가해집단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고 오히려 이들과 피해집단, 피해-가해집단과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어서 지배성과 자기애성이 낮은 경향성이 피해집단을 다른 집단과 구분하는 특성으로 나타나서 집단 따돌림 피해를 많이 경험한 집단을 대상으로 중재 훈련 프로그램에서 이들의 낮은 지배성과 자기애성 수준을 향상시키는 개입 전략(예, 자기주장훈련, 자기성장 집단상담)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집단따돌림 하위집단별 사회·학업적 경쟁심과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학교성실성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집단간 사후비교 결과 가해-피해 집단이 일반집단에 비해서 학교성실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가해-피해 집단의 학생들이 일반집단의 학생들에 비해서 더 학업능력이 떨어진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Andreou(2000)의 연구결과 및 가해-피해 집단의 학생들이 일반집

단의 학생들에 비해서 행동에 대한 통제력이 부족하고 부적응성(미성숙, 위축행동, 우울 및 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한중철과 김인경(2000)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가해-피해 집단 학생들은 학교현장에서 가해-피해 집단의 학생들은 교사들이 이들의 피해경험은 주지하지 못하고 가해행동만을 처벌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좌절을 경험하게 되어서 (Paulk, Swearer, Song, & Carey, 1999) 학습에 대한 동기가 떨어져서 결과적으로 학습에 대한 노력의 동기유발 태도인 학교성실성이 낮아진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이들은 불안하고 공격적이며 주의집중을 못하기 때문에(Olweus, 1994), 또래집단에서 거부되어(Bower, Smith, & Binney, 1992) 결과적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서 신경증적과 정신병적 특성이 높게 나타난 것을(Mynard & Joseph, 1997) 고려해 볼 때 학교 현장에서 집단 따돌림 예방·중재 훈련이나 집단 상담시에 가해집단보다는 가해-피해 집단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며 이들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 진행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여겨진다.

넷째, 집단따돌림 하위집단별 마키아벨리적 신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되었다. 가해-피해 집단에서 점수가 가장 높고, 가해집단, 피해집단, 일반집단의 순으로 점수가 높았으며, 쌍별 비교 결과 가해-피해집단이 일반집단보다 마키아벨리적 신념이 더 강했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불안감과 공격적 형태가 복합된 특성을 보이는 가해-피해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서 마키아벨리즘적 신념점수가 높게 나타난 Sutton과 Keogh(2000), Andreou(2000)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가해와 피해를 동시에 경험한 가해-피해 집단 학생들은 타인을 믿을 수 없는 존재로 생각하며, 아울러 이들은 대인관계 상황에서 타인조종적 전

락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집단따돌림의 가해와 피해에 밀접히 개입되고 관련된 집단에서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고 타인조종적 전략을 사용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가해-피해 집단의 특성을 규명하는 일이다. 본 연구 결과, 가해-피해집단은 특권의식, 권력, 우월감의 자기애성 3개 하위요인과 자기애성 및 지배성에서 가해집단과 일반집단보다 낮은 성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해-피해 집단은 원래 가해성향이 높은 집단이었다기 보다는 피해를 당한 후, 보복심리에서 혹은 가해자의 따돌림 행위를 모방함으로써 또다른 가해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따돌림 피해자의 50%가 가해를 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한 한림대 의대(동아일보, 2001, 9, 2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따돌림 현상이 우리 청소년들 사이에서 만성화 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국내의 연구와 조사결과에서 증가추세에 있는 가해-피해 집단에 대한 특성분석과 더불어 가해집단, 가해-피해집단, 피해 집단의 심리적 특성에 따른 상담적 개입을 통하여 집단 따돌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집단따돌림 하위집단에 따라 자기애성, 지배성 및 마키아벨리적 신념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가해집단에서 자기애성 3개 하위요인인 특권의식, 권력, 우월감에서 높은 성향을 보이며, 지배성향도 높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가해-피해집단에서 마키아벨리적 신념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집단따돌림 가해성향이 높은 집단은 현실과 맞지 않게 자신을 우월하고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타인을 함부로 지배하려 하며, 끊임없이 희생양을 만들어냄으로써 자신의

열등감과 불안을 왜곡된 방법으로 은폐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가해자들의 특성은 집단따돌림 행위를 정당화시켜 나가려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상담 프로그램과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입이 시급하다고 본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공격성을 동시에 지닌 가해-피해 집단에서 마키아벨리적 특성이 높게 나타난 결과에 주목하고, 이들의 신뢰회복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청된다. 또한 지배성과 자기애성이 낮은 특성이 확인된 피해집단을 대상으로 한 지배성과 자기애성을 향상시키는 개입 전략(예, 자기주장훈련, 자기성장 집단상담)이 포함된 적극적인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검사도구 및 대상의 표집과 관련된 문제로, 본 연구에서 측정된 모든 변인들은 자기보고식 연구방법을 통해 측정되었다. 자기보고식 측정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과 오류가능성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질문지 방법 외에 질적 연구방법 등의 다각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둘째, 검사도구의 신뢰도에 관한 문제로, 마키아벨리적 신념을 재는 아동용 마키아벨리즘 척도(Kiddie-Mach scale)와 사회·학업적 경쟁심 척도(The social academic competition scale)의 신뢰도가 약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마키아벨리적 신념을 재는 척도를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에 관한 문제로, 본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횡단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발달적 추이를 탐색하는데 제한적이었다. 학생들의 연령별, 학교수준별 집단따

돌림의 양상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추후연구에서는 종단적 방법의 연구도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그밖에 성차에 따른 따돌림 방법이나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학생의 경우, 보다 심리적·언어적·사회적 따돌림 방법이 사용되고, 따돌림 대상에 대한 지지를 통한 간접적·우회적인 방법으로 비밀리에 교묘하게 진행되며, 남학생은 물리적·직접적인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들을 참고해 볼 때, 가시적인 따돌림 현상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음성적인 따돌림 방법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마키아벨리적 신념과 학업성적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즉 마키아벨리적 특성을 가진 가해자, 피해자들이 자신의 학업성적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욕구불만과 불안을 풀어나가는지에 대한 추후연구가 기대된다.

참고문헌

- 구본용 (1997). 청소년의 집단 따돌림의 원인과 지도방안, 따돌리는 아이들 따돌림 당하는 아이들. 서울: 청소년 대화의광장.
- 김용태, 박한샘 (1997). 청소년 친구 따돌림의 실태조사, 따돌리는 아이들 따돌림 당하는 아이들. 서울: 청소년 대화의광장.
- 김윤주 (1991). 자기애적 성격과 자기복합성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원 (2000). 집단따돌림 가해·피해에 따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 성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종미 (1997). 초등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성격과 유발요인.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0(2), 17-33.
- 동아일보 (2001. 8. 3). 중고생 40% 우울증. 25면.
- 동아일보 (2001. 9. 24). '왕따' 피해자 절반은 가해자. 29면.
- 동아일보 (2001. 10. 14). 고교생 수업중 급우살해. 19면.
- 박경숙, 손희곤, 손혜정 (1998). 학생의 왕따 현상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 보고 98-19.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박경숙 (1999). 왕따·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처방안에 대한 토론, 왕따·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처방안. 경희대 교육문제연구소.
- 박정민 (1998). 비행청소년의 나르시시즘, 지배성, 공격성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변창진, 문수백 (1994). 사회과학 연구를 위한 실험 설계·분석.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심선보 (2000). 가정환경변인, 심리사회적 특성과 집단따돌림 경험유형과의 관계.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염태호, 김정규 (1991). 비행청소년의 성격특성과 성격유형. 형사정책연구, 2(4), 193-222.
- 원호택(1991). 청소년 범죄 행동유발 요인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상로, 변창진, 진위교 (1996). 표준화 성격 진단 검사: 중학생-성인용.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 이시형 (1998). “왕따”현상에 대한 이해와 해결, “왕따”현상에 대한 이해와 상담접근, 서울특별시 청소년종합상담실 개원 1주년 심포지엄 자료집, pp. 2-14. 9월 22일. 서울: 서울특별시 청소년종합상담실.
- 이춘재, 광금주 (2000).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실태와 특성. 서울: 집문당.

- 한영주 (1999). **중고등학교 집단따돌림 가해자 및 피해자의 특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종철, 김인경 (2000). **또래 따돌림과 심리사회적 부적응**.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2), 103-114.
- 한준상 (1999). **학교내 비폭력문화 프로그램 개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Andreou, E. (2000). Bully/victim problems and their association with psychological constructs in 8- to 12-year-old Greek schoolchildren. *Aggressive Behavior*, 26, 49-56.
- Biscardi, D., Schill, T. (1985). Correlations of narcissistic traits with defensive style, Machiavellianism and empathy. *Psychological reports*, 57, 354.
- Bowers, L., Smith, P. K., & Binney, V. (1992). Coercion and power in the families of children involved in bully/victim problems at school. *Journal of Family Therapy*, 14, 371-378.
- Braginsky, D. D. (1970). Machiavellianism and manipulative interpersonal behavior in childre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6, 77-99.
- Callaghan, S., & Joseph, S. (1995). Self-concept and peer victimization among schoolchildre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8(1), 161-163.
- Carroll, L. (1987). A study of narcissism, affiliation, intimacy and power motive among students in business administration. *Psychological reports*, 61, 355-358.
- Emmons, R. A. (1984). Factor analysis and construct validity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8, 291-300.
- Mynard, H., Joseph, S. (1997). Bully/victim problems and their association with Eysenck's personality dimensions in 8 to 13 year-olds.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7, 51-54.
- Neary, A., & Joseph, S. (1994). Peer victimization and its relationship to self-concept and depression among school childre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6, 183-186.
- Olweus, D. (1994). Annotation; **Bulling at school; Basic facts and effects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and Allied Disciplines*, 35, 1171-1190
- Pellegrini, A. D., Bartini M., & Brooks, F. (1999). School bullies, victims and aggressive victims; factors relating to group affiliation and victimization in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1(2), 216-224.
- Paulk, D. L., Swearer, S. M., Song, S., & Carey, P. T. (1999, August). *Teacher-, peer-, and self-nominations of bullies and victims of bullying*.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s 1999 annual convention.
- Raskin, R., Terry, H. (1988). A principal-components analysis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and further evidence of its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5), 890-902.
- Raskin, R., Hall, C. (1981).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Alternative form reliability and further evidence of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5, 159-162.
- Raskin, R., Novacek, J., & Hogan, R. (1991) Narcissistic self-esteem manag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911-918.
- Slee, P. T., Rigby, K. (1993). The relationship of Eysenck's personality factors and self-esteem to bully-victim behavior in Australian schoolboy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4(2), 371-373.

Sutton, J. & Keogh, E. (2000). Social competition in school: Relationships with bullying, Machiavellianism and personality.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0, 443-456.

Sutton, J. & Keogh, E. (2001). Components of Machiavellian beliefs in children: Relationship with personali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30, 137-148.

Tabachnick, B. G., & Fidell, L. S. (1996). *Using multivariate statistics* (3rd ed.). NewYork: Harpercollins College Publishers.

원 고 접 수 일 : 2002. 3. 30

수정원고접수일 : 2002. 5. 28

게 재 결 정 일 : 2002. 6. 14



The Bullying and Psychological Traits

Un-Hee Kahng Eun-Hee Lee Eun-Jung Yim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was done to identify group bullying adolescents' psychological traits in narcissistic propensity, dominance, social and academic competition and Machiavellian beliefs according to their group bullying experiences as bullies, victims, bulli-victims and a few-bullying experience. The subjects were 408 male and female junior highschool students in the four junior highschools in K-city. Group Bullying Scale which combined both Bullying-Behavior Scale and Peer-Victimization Scale was administered.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NPI), dominance scale, social and academic competition scale(SACS) and kiddie-mach scale were administered. And the four groups' differences were measur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three sub-scales of NPI, entitlement, power and superiority among the four groups. Especially, the highest degree of entitlement and power appeared in the bully group. Superiority appeared most in a few-bullying experience group. Seco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dominance. The bully group showed most dominant among the groups. Third,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he four group in school conscientiousness scores. Fourth,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scores of Machiavellian beliefs among the four groups.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es and bullying prevention programs for school bullies, bully-victim, victims were suggested.

Key Words : bullies, victims, bulli-victims, psychological traits.

부 록

사회·학업적 경쟁심 척도 문항들의 요인부하량(Varimax rotation)

문	항	요인 1	요인 2
1.	내가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나 자신에게 증명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	.705	.009
7.	내가 잘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느끼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한다.	.619	.085
3.	내가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증명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다.	.607	.029
12.	나는 학교에서 잘하는 것이 미래에 중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한다.	.531	.032
5.	부모님이 내가 잘하는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한다.	.521	.119
13.	내가 열심히 하면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한다.	.451	.199
8.	나는 힘든 일에 도전하는 것을 좋아한다.	.401	-.107
15.	반에서 가장 영리하다는 것은 멋진 일이다.	.261	.097
9.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관심이 없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관심이 있다.	.255	.166
16.	나는 반에서 다른 친구들보다 더 뒤고 싶지는 않다.	-.206	.063
4.	내가 열심히 하면 다른 친구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서 항상 열심히 하지는 않는다.	-.353	.583
10.	다른 친구들이 내가 어부한다고 생각할까봐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숨긴다.	.007	.530
2.	선생님이 예뻐하는 아이들은 친구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노력한지 않는다.	-.293	.513
6.	나보다 못한 친구들을 비웃어 주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	.013	.337
요인고유가(Eigenvalues)		2.607	1.139
요인설명량(% variance explained)		72.5	31.6

주. 요인 1 = 학교 성실성 요인 2 = 사회적 성공욕구